FX Market Daily

2026-06-23

전일동향	전일 대비 10.00원 상승한 1,537.00원에 마감

22일 환율은 NDF 종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3.90원 상승한 1,530.90원에 개장했다.
외국인 주식 매도와 엔화 약세가 환율 상승을 부추기며, 전일 대비 10.00원 상승한 1,537.00원에 마감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10.1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51.19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530.90	1539.80	1529.70	1537.00	1535.70
엔화	946.61	953.62	945.35	951.19	-
유로화	1752.01	1765.53	1748.28	1756.44	-

* 시가/고가/저가/종가: 달러는 익일 06:00(美 서머타임 해제 시 익일 07: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29	-2.94	-7.25	-15.8
결제환율(수입)	-0.12	-1.68	-5.05	-12.26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강달러 압력에...1,530원대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9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1,537.00) 대비 1.35원 상승한 1,537.40원 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강달러 압력과 엔화 약세로 제한적 상승 전망한다. 미-이란 협상 진전 소식과 원유 공급 가능성에 국제유가는 2% 이상 하락하며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매파적 연준으로부터 비롯된 글로벌 강달러 분위기가 부각되고 있다. 또한 BOJ의 금리 인상 이후에도 엔화 약세 압력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원화에 부담을 더하고 있고, 라가르드 ECB 총재가 유로존 물가가 물가 목표에 복귀할 것으로 예측하고 점진적인 정책 조정만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대외 재료들을 소화하며 금일 환율은 상방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국의 미세조정 물량 유입 경계감과 수출업체 고점 매도 물량은 환율 상승폭을 제한할 전망이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530.00 ~ 1542.67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5465.52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35원↑
	■ 美 다우지수 : 51712.71, +148.01p(+0.29%)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03.51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6889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